

〈제 529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은행

◆ 자녀양육 지원하며 워라밸 실현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4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직장어린이집(KJ dreamland) 개원식을 가졌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직원이 행복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한 광주은행 직장어린이집은 직원들의 워라밸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워라밸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광주은행은 3월 한 달간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 중이다. 올해로 두 번째 시행하는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대상 직원들의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순연 실시하여 자녀에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자녀돌봄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직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삼일건설

◆ 제53회 ‘납세자의 날’ 행사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 수상

삼일건설(회장 최갑렬)은 지난 4일 광주합동청사 2층 강당에서 모범납세자, 지역 경제단체장, 국세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주지방국세청 ‘제53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을 받았다. 최갑렬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모범을 보였으며, 지난 23년간 물적·인적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게 됐다.



무등기업

◆ 제53회 ‘납세자의 날’ 행사 산업포장 수상



무등기업(대표이사 박건우)은 지난 4일 광주합동청사 2층 강당에서 모범납세자, 지역 경제단체장, 국세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주지방국세청 ‘제53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산업포장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기여하거나 실업에 정려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그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보해양조

◆ 2019 일본 푸덱스에서 외국인들 큰 호응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2019 일본 식품-음료박람회’ (FOODEX 이하 푸덱스)에 참가했다. 올해 44회째를 맞는 푸덱스는 전 세계 80여개국 8만여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식품-음료 박람회로, 이번 행사에서 보해양조는 보해복분자주를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독일의 식품업체와 아하시 맥주 관계자들도 보해의 과실주 제품에 관심을 보였으며, 현재 미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등 20개 국가에서 판매중인 보해복분자는 이번 일본 푸덱스를 통해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더 많은 나라로 수출될 전망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 기아차 광주공장 단독생산 ‘쏘울 부스터 EV’ 본격 판매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박래석)은 지난 5일 쏘울 부스터 EV 모델을 출시하고 전국 영업점에서 판매를 실시했다. 쏘울 부스터 EV모델은 1회 충전시 최장 주행거리 386km, 전기차 특화 주행모드, 다양한 충전 편의기능을 갖추고 저렴한 요금과 시간대 등 목적을 고려한 ‘예약 충전’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충전을 시작한 뒤 목표충전량에 도달하면 충전을 종료하는 ‘예약 충전’ 기능이 적용됐다.



정부 보조금 확대와 맞물려 전기차 보급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기아차 광주공장은 전기차(환경차) 생산 능력 보유와 기술 축적을 통해 ‘미래 차종 주력 생산 기지’ 역할이 기대된다.

호반건설

◆ 호반건설 호남 첫 ‘국세1000억 탑’ 수상

호반건설 (회장 김상열)은 지난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호남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세 1000억 탑’을 수상했다. ‘고액 납세의 탑’은 연간 납세액이 1000억원을 처음 넘거나 종전 최고 납부세액보다 1000억원 이상 증가한 법인에게 대통령 명의로 수상하는 기념탑으로 2004년부터 매년 납세자의 날에 해당 기업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모범 납세 등으로 지난 2008년 ‘철탑산업훈장’, 2013년 모범납세자 선정, 2015년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한 바 있다.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참석〉

본회 운영현 상임부회장은 3월 4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에 경제단체 초청 인사로 참석했다. 윤 부회장은 세정 협조자 수상자에 대해 상을 전수하고 격려했다. 아울러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정을 감안한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기업형 5기 유형별 교육 실시〉

본회(회장 최상준)는 지난 7~8일 이틀에 걸쳐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기업형 5기 청년 참여자 100명을 대상으로 유형별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일부터 진행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은 4일 공통교육을 시작으로 7~8일에는 유형별 사전직무교육을 통해 참여청년 교류시간과 문화의 날 프로그램을 진행해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로써 공통교육을 모두 수료한 참여청년은 11일부터 7월말까지 각 참여 드림터에 근무하며 현장에서의 일경험 통해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무와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II. 광주경충 소식

〈1432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3월8일 오전 7시 신양파크호텔에서 이상민 브랜드엔컴퍼니 대표를 초청 <브랜드파워를 창출하는 시그니처 스토리 전략>이란 주제로 제1432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브랜드파워란 브랜드스토리를 만드는 능력이다. 브랜드 전략의 목표는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다. 강력한 브랜드 구축방법은 높은 브랜드 인식과 평판, 명확한 브랜드의 존재 이유, 브랜드와 친밀한 고객관계, 구성원과 브랜드의 일체감으로 스토리는 끊임없이 진화 발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전략 수립은 인지도-지각된 품질-연상 이미지-충성도의 자산 구축 단계를 통해 브랜드에 대한 충성고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브랜드의 비결 시그니처 스토리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사람 스토리,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는 스토리, 활력을 창출하는 브랜드 스토리, 함께 공감하는 고객 스토리, 신뢰를 상징하는 성장스토리, 연관성을 창조하는 인용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시그니처 스토리전략으로 내부구성원은 조직문화, 가치, 영감과 신뢰를 통해 실천하는 가치를 보여줘야 하며, 기존고객은 우리 브랜드를 구매하는 핵심요소가 무엇인지? 잠재 고객은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구매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차별화되어야 하는가를 스토리 전략으로 보여줘야 한다.



1. 노사 동향

■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근로자위원 3명이 불참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의결을 하지 못하고 회의 종료

○ 당초 경사노위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본위원회를 개최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 등에 대해 의결을 진행할 계획

- 하지만, 근로자위원 4명 가운데 3명이 불참함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안전에 대한 의결을 하지 못하고 회의 종료

※ 불참 근로자위원 :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참고 1] 경사노위 본위원회 주요 안건 및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 단위기간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적용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시간 연속 휴식제도 의무화 도입(서면합의 시는 예외) · 서면합의로 주별 근로시간 설정 (예상치 못한 사유 발생 시 협의로 변경 가능)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고용보험 모성보호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대폭 확충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합의	<p>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격한 디지털 전환 및 산업구조 재편으로 인해 (使) 기업경쟁력, (勞)일자리 안정성, (政)산업정책에 대한 고민 인식 ▲ 노사정 공동인식 하에 긴밀하게 협의·협력 필요

○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3. 7 기자회견에서 “본위원회를 3월 11일 다시 개최하고자 하며,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참여를 촉구한다”고 강조

■ 3월 임시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법(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3. 5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

※ 임시국회 일정 : 개회식(3. 7), 교섭단체 대표 연설(3. 11 ~ 13), 대정부질문(3. 19 ~ 22), 본회의(3. 28, 4. 5)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입법의 조속한 처리 계획을 밝혔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핵심쟁점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 ▲최저임금제 개선 지목
- 여당은 경사노위 합의와 고용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입법 과정에서 법안 내용 수정 가능성 시사

[참고 2] 환노위 계류 주요 노동법안

법안명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정
최저임금법	▲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 결정체계·기준 변경
노조법	▲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삭제
고용보험법	▲ 특수형태종사자·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실업급여 확대
특수형태 종사자보호법	▲ 특수형태종사자의 노동관계법상 보호 법정화 - 특수형태종사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정

■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30여개 사업장에서 3,200여명만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 (고용부 집계)

○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ILO핵심협약 비준, ▲최저임금제 개편 철회를요구하며 3. 6 총파업 진행

- 김명환 위원장은 3. 6 국회 앞에서 진행된 총파업 집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제 개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한국노총을 끌어들이려 야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강력 투쟁 예고

※ 2018. 11. 21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9만여명 참여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한편,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앞서 “총파업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히고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 발언(3. 4)
- 한국노총은 단체교섭에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개선등을 요구할 것을 권고

[참고 3] 한국노총 2019년 단체교섭 주요 요구

구분	주요 내용
근로시간 단축	▲ 주52시간제 전면적 조기도입 ▲ 일방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조정 개편 저지 ▲ ‘실노동시간단축-교대제 개편 추진위원회’ 구성 ▲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남용방지
최저임금 보장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및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요구 ▲ 각종 수당을 보전수당으로 단일화하는 시도 거부
비정규직 처우 개선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며, ‘합리적 처우를 위한 기준’ 을 노사합의로 마련 ▲ 분리직군화 등에 대비해 동종·유사업무에 대한 기준 확장 ▲ 사내 신속한 차별시정 절차 마련
구조조정 대응	▲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와 의결사항을 단체협약에 명시 ▲ 노사간 합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 체결

□ SK이노베이션 노사는 3. 5 조인식에서 2019년 임금교섭에 최종 합의

○ 노사는 임금인상률을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인 1.5%(기본급 기준)로 합의

- 노사는 2. 18 상견례를 열고 바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노조는 2. 27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

※ 투표 결과 : 재적 2,476명, 투표 2,170명, 찬성 1,901명(투표자 대비 87.6%)

- 노사는 2017. 9월 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시키기로 합의

2. 판례 동향

제품 포장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의 MES를 통해 제품별 포장사양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포장지로 제품을 감싸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를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음(광주지법 순천지원 2019. 2. 14. 선고 2017가합12074 판결).

1. 사실관계

- A社(이하 ‘원청’)는 제철소를 두고 철강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압연공정의 포장 업무를 위해 B社(이하 ‘협력업체’)와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함.
 - ※ 협력업체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1997. 11. 상장)으로 전체 매출액에서 포장사업의 비중은 절반 정도이고, 포장사업에 관한 독자적인 기술 및 자체 개발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협력작업에 사용되는 일부 설비도 소유하고 있음.
- 압연공정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들은 각 공정의 생산기계를 조작·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생산공정을 거쳐 완성된 코일의 포장 업무를 수행함.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완성된 코일이 포장라인 야드로 들어오면,이송된 코일과 MES상의 포장사양 정보를 비교해 라벨을 부착하고 제품 하자를 확인하면 이를 원청 소속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함.
 - 이어서 자동화된 포장설비를 이용해 코일을 순차 이동시켜 포장작업을 하는데 MES에 나타난포장사양대로 작업을 진행하고 마무리되면 라벨을 부착함.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MES를 통해
 - ① 포장사양,
 - ② 포장대상 코일의 두께, 폭, 길이, 중량, 내경
 - ③ 코일의 생산기한 및 작업기한
 - ④ 포장대상 코일의 생산공정 진행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음.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원청의 구체적 업무 지휘·명령을 통해 작업을 해왔으므로 위 협력작업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청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2. 판결요지

(1) 원청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 관련

- 협력업체는 자체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이를 작업장에 비치하였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 왔음.
 - ※ 협력업체는 1978년경 사내표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각종 포장작업에 대한 작업표준의 체계 및 표준번호 부여방식 등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두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
- 원청은 협력업체와 포장사양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MES를 통하여 포장대상 코일에 대한 포장사양 코드 정보 등을 전달했으나, 포장업무의 특성상 도급인과 수급인이 포장사양의 유형 및 포장규격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점, 협력업체가 고객의 주문에 맞춘 포장사양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제품별 포장사양에 관한 정보를 MES로 제공한 것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작업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음.
- 원청은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협력업체에 작업진행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협력작업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원청이 협력업체의 포장작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연될 경우 업무연락을 한 것은 작업순서 연계의 특성상 상황 파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원청이 협력업체에 대해 포장실적 충족을 요청한 적도 있으나, 그에 따라 추가 인력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주체는 원청이 아닌 협력업체이므로, 위 요청을 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

(2) 원청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혼재근무 또는 공동작업 여부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입고된 코일이 포장작업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원청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생산된 코일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양자는 기능적으로 명확히 분리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혼재근무를 하였다거나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음.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컨베이어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압연공정의 특성상 포장업무 역시 원청이 결정한 작업속도에 구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포장작업에 선재하는 작업이 지연되면 포장작업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포장라인에는 야드가 존재하여 포장작업이 선후 공정의 차질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점, 원청은 일정 제품군의 생산기한을 정하는 정도로만 전반적인 생산스케줄을 관리하고 있는 점, 특히 포장라인은 쉬프터 버튼 조작을 통하여 작업속도를 스스로 조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포장작업의 생산속도가 원청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이지는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은 근거 없으므로 모두 기각함.

3. 시사점

- 해당 법원은 이 사건의 주요쟁점인 원청의 업무지시, 근로자들의 혼재근무(공동작업)와 관련하여 원청의 업무 관여는 협력업체와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에 의거 도급인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함.
-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MES를 통한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포장사양을 MES로 구체화 한 것일 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MES를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의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가 아니라고 판단함.
- 최근 하급심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MES 이용과 관련해 원청의 업무지시 인정 여부가 엇갈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